



‘부르고뉴의 대명사 알베르 비쇼’

##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피노누아 스크레 드 파미

Bourgogne Secret De Famille Pinot Noir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포도품종	피노 누아 100%		
알코올	12.77%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블랙체리, 블루베리와 같은 검은 베리류 아로마와 붉은 베리류 아로마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벨벳과 같이 부드러운 미감이 돋보이며, 균형있는 구조감과 함께 나타나는 붉은 과일류의 풍미가 매력적이다.		



### 제품설명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뫼르소, 뿔리니 몽라세, 상블 뫼지니와 같이 특별한 피노누아 산지에서 생산된 포도를 엄선하여 세심한 블렌딩으로 만든 와인이다.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숙성된 와인과 오크배럴에서 숙성된 와인을 블렌딩하여 과일의 신선한 미감과 함께 오크숙성에서 오는 구조감과 복합미를 느낄 수 있다.

### 수상내역



2022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86점 Top Value Selection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1점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릭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릭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떼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릭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릭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